

이혼 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발달적 이해

이 종 속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대한 개괄적 고찰로서 특히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이혼 당시와 현재의 발달 단계별 적응 양상과 이혼 후 가족의 형태나 이혼 가정의 과정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달 단계는 전학령기, 초등학교기, 청소년기로 분류하여 그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전학령기의 적응상의 특징은 인지 사회적 발달 미숙으로 인하여 이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모와의 이별을 버려진 것으로 지각한다는 점이고 초등학교 시기의 특징은 이혼에 대한 사회와 인식에 대한 지각과 부모의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되며 청소년기의 특징은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이 편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 아버지의 딸 양육이 약간의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으나 가족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과정변인으로서 부모-자녀 간의 밀접성, 이혼 후 부부 간의 협조적 관계, 편 부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 양육 시간 등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적응을 돕는 변인들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핵심어: 이혼 · 이혼 가족의 형태 ·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 · 이혼 가정
자녀의 발달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남성이 가정 밖에서도 가정 의존적이던 요구 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8년에 결혼 대 이혼 건수의 비율이 2:1이 될 정도로 이혼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이혼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

들이 아주 관심 깊게 연구해온 주제였고 방대한 이혼과 관련된 연구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이혼은 드물지 않은 사건이 되었다. 197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0.7명이며 결혼 23건 당 1건이던 이혼율이 1995년에는

인구 1000명당 1.6명과 결혼 6건당 이혼 1건 꼴로 증가하였다(변화순, 1997).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이혼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형편이다.

부부 간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그 결과의 피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입게 되는 자녀들은 그 상처와 충격이 아마 그들 평생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부모의 사망 다음으로 큰 충격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이혼 후 사회적, 행동적, 심리적 변화와 적응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상당히 불일치하거나 혼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연구들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지 못하고 부적응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들은 이혼이 특별히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일치의 결과는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그만큼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많은 이혼에 관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이혼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 원인들을 탐색해보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적응

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연구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변인들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집단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주소희(1991), 정현숙(1992), 오은순(1997)의 연구와 그외에 소수의 사례분석 연구들이 있다(변화순, 1996). 부족하나마 이들 연구의 결과들은 서구의 연구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 특유의 이혼에 대한 인식과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현숙은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혼 당시의 연령, 성별, 아동의 기질, 이혼전의 가족관계, 이혼전 부모의 외현적 갈등의 정도, 별거기간중의 부모의 훈육태도, 사회적 지원의 정도,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의 재혼 여부, 이혼 후 비친권 부모와의 면접 정도와 친권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변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의 변인들은 지금의 연구들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 가정의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중 몇가지 변인만을 추출하여 이 변인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혼할 당시의 자녀의 연령과 현재의 자녀의 연령은 모두 자녀의 이혼 후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Amato & Keith, 1991). 이혼할 당시의 연령이 중요한 이유는 연령에 따른 아동

의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단계상의 특징과 이혼이라는 외상적 경험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에 따른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양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의한 이혼의 효과나 적응 양상의 고찰 속에는 자연히 성별 차이가 고려되게 된다.

다음은 부모의 이혼 후에 자녀 양육 환경이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자녀 양육권이 어떤 부모에게 주로 부여되어 있는지, 또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계속적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접촉 정도, 부모의 재혼 여부 등은 자녀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 후 가족 형태별 적응의 차이와 각 유형의 가족의 양육상의 과정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적응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발달 단계별 이혼에 대한 심리적 적응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의 결과가 그렇게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혼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개인차

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변인들이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인들 중 개인적 변인으로서는 자녀의 연령과 성이 흔히 많이 연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Johnstone, 1990). 그러나 이렇게 연령과 성차 변인을 전반적으로 평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혼의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연령은 단순히 많고 적음을 떠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가 어떤 인지, 사회, 성적 발달을 거치고 있느냐에 따라 적응 과정이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적응에 대한 발달적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의 원인, 한쪽 부모의 상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 부모간의 갈등과 그들의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의 변화 등의 일련의 충격적 변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정신 건강과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아동의 이혼 후 적응을 발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사회 인지적 발달 수준에서 차이가 이혼이라는 다자간의 갈등 관계를 아동이 이해하는데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Selman(1980)의 사회인지적 발달 단계 이론은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elman에 의하면 아동의 대인 관계적 기술에 대한 이해는 대략 4단계의 발달을 거치는데 0단계는 자기 중심적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견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는

주관적이며 한번에 하나의 주관적 견해 밖에는 수용하지 못한다. 다음 1단계는 주관적 단계이며, 이 시기에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대인 관계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인 관계의 질이 관계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 관계는 절대적으로만 이해된다. 다음 2단계인 자기 반성적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다른 사람의 견지에서 반성할 수 있으며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이중적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은 이해하나 어떻게 그러한 양가적 감정을 통합하고 해소할지는 알지 못한다. 3단계인 상호적 단계에 이르르면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의 견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는 상호간의 동기과 감정과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단계는 사회, 관습적 제도에 입각한 사회인지 단계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견해들이 통합된 조직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Longfellow(1979)는 Selman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행의 발달에 기초하여 Wallerstein과 Kelly(1974, 1975, 1980)가 보고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이해 양식을 단계별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어린 아동의 이혼에 대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귀인 행위나 이혼 후 퇴행 불안 등은 자기중심적, 주관적 사고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결혼과 부모 자녀 관계의 상호성과 결혼관계와

부모 자녀관계는 별개의 관계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은 이혼을 한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으로 이해하며 위기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반성적 단계에 속한 아동은 이혼에 대하여 자기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사회적 자의식을 느끼게 되어 사회에서 보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을 지각한다. 청소년기의 자녀가 이혼에 대하여 가족과는 거리를 두려하거나 객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들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특별한 인간관계에 자신이 독립적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이해는 사회인지적 발달 못지 않게 심리사회적, 심리성적 발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Freud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나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이론은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이혼 이후 나타나는 아동의 다양한 부정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이 두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Johnstone과 Roseby(1997)는 심리 성적, 심리사회적 이론에 기초하여 이혼을 경험할 당시의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첫단계는 영아기와 유아기 단계로 이시기에 아동은 분리와 개별화를 경험하여야 하며, 두번째 단계는 유아기로서 이 시기에는 분리와 성역할, 성적 욕구의 발달을 경험하게 되며, 세번째 단계는 학령기로서 사랑 받기 위한 투쟁, 착하고, 능력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초기 청소년기에는 영아기에 경험한 분리-개별화의 경험을 다시 하게되며

외디프스적 성적 욕구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며 갈등적 가족관계로부터 독립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혼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발달이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uttmann(1993), Johnstone과 Roseby(1997)는 이러한 사회인지 발달이나 심리성적 혹은 심리사회적 이론들에 기초하여 각 단계 아동들이 경험하는 이혼에 관련된 이해나 심리적 충격들을 고찰하고 그러한 발달적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Guttmann은 이혼 당시의 연령도 중요하지만 이혼후 경과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이혼의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이혼 후 경험하는 적응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또한 이 저자들은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연령을 전학령기, 학령기(잠복기), 청소년기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본고에서도 이혼후 자녀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이러한 사회인지적, 심리성적,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이혼이 전학령기 자녀에 미치는 영향

전 학령기는 외디프스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경험하는 심리 성적, 혹은 심리 사회적 이해가 다르다. 전기에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성 자율성의 획득과 분리-개별화의 경험이 중요하고 후기에는 주로 외디프스 갈등의 해결이 중요하다. 전학령기 초기의 이혼 대한 경험은 나이든 아동들 보다 비교적 단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더 깊고 더 넓은 범위의 상처를 입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allerstein & Kelly, 1980). 많은 연구들에서 남아들이 여아보다 더 발달상의 장애를 나타내었으며 더 오래 장애가 지속되었다.(Emery, 1982; Hetherington et al., 1978, 1979a; Hodges & Bloom, 1984). 또한 이혼 전에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은 더 심각하고 더 긴 부적응 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혼 후에 적절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율성 형성을 저해하여 불신, 수치감, 의심 등의 표시로 요구적, 의존적, 행동적 문제를 표출한다. 아동 자신의 인지적 발달적 한계와 미성숙은 이혼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적응을 악화시킨다.

단기적 영향

임상적 연구에서 이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단기적 부적응 행동으로는 퇴행이 일관성있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McDermott, 1970; Wallerstein & Kelly, 1980b). 퇴행은 교사의 보고, 부모의 보고와 독립적 관찰자의 보고에서 모두 지적되는데 더 불순종하며, 의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놀이가 더 제한적이되고 미성숙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미성숙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퇴행,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요구가 많아지고, 의존적, 달라붙기, 공격성 등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시기의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예외없이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혼을 결정하는 단계나 초기 상심기에 모두 나타나며 이혼 후 일년 정도까지 지속된다. 외디프스기

의 남아들은 여아에 비하여 더 심각한 경험을 하게되는 경향이 있어 남아의 경우는 이혼 후 이년 정도까지도 나타난다. 이렇게 남아가 여아보다 더 취약한 것은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혼시 주로 가정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남아가 경험하는 "보상적 남성성"과 과도한 의존성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외디프스 콤플렉스의 출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양육부모와 과도한 밀착에 대한 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Roseby, 1985).

2세 반에서 6세에 이르는 아동들의 임상적 연구에 의하면 이혼을 결정하기 직전에 혹은 직후에 정서적 반응은 주로 두려움, 불안, 슬픔 등이었다(Wallerstein & Kelly, 1975). 이들은 배변 훈련에서 퇴행을 보이고 짜증내기, 칭얼거리기, 격리불안, 수면 장애, 인지적 혼란, 자애적 행위, 대물애착증상, 공격행동의 증가, 때쓰기 등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들의 인지적 미성숙으로 환상과 현실의 구별 능력이 결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들의 요구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남아는 아버지의 별거를 부정하고 광범위한 환상에 사로잡히며 성인들에 의해서 적절한 이혼의 이유를 확인 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환상속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혼의 원인 속에 자책감이나, 자신도 버려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현숙(1991)의 연구에서 자녀가 이혼 당시의 연령이 어릴 수록(이연구에서는 1-5

세에 이혼을 경험한 비율이 22%였음) 자기비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설을 뒷바침한다.

Wallerstein과 Kelly의 연구에서는 별거 후 1년만에 아동을 다시 평가하였는데 이때에는 퇴행과 공격성, 공포는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사라졌다. 이후에도 계속 부적응적인 아동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이혼 그 자체보다는 계속적인 부모의 갈등이나 부적절한 부모 양육으로부터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은 수면장애, 억제, 놀이와 환상에서의 위축, 공격성, 성인과 지속적 신체적 접촉 요구, 성인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그러므로 이혼 후 일년간의 아동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이라고 결론 지었다.

장기적 영향

유아기의 이혼 경험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 나이든 아동들에 비하여 덜 심각한 것 같다. Wallerstein(1984)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의하면 어린 아동들은 더 나이든 아동들보다 덜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유아는 이혼 직전과 직후의 부모의 갈등을 덜 기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당시의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본다. 영유아기에 이혼을 경험한 남아는 부부재로 인하여 신뢰성과 자율성의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또 성에 대한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Santrock(1970)은 이혼 당시의 연령이 0-2세, 3-5세, 6-9세였던 남아들이 11세가 되었을 때의 적응을 관찰하였는데

이혼시의 연령이 더 어린 아동일 수록 덜 공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 효과에서도 논의하였던 것처럼 공격성은 낮아지고 과도한 의존성이 나타났던 것이 그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3세 이전의 이혼의 경험은 그들이 이후 잠복기에도, 계속 비공격적 과잉의존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Kalter와 Rembar(1981)의 연구에서도 3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와 또래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다른 시기에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에 비해 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과잉 의존적 행동이나 부모에게 더 밀착되려는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해가는데 반하여 의존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 외디프스기에 이혼을 경험하는 것이 의존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그 단계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감이나 자율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디프스기에 이혼을 경험하여 부부제 상태로 자란 남자는 보상적 남성성의 표현으로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임상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다. 이들은 이러한 공격성은 어머니에 대한 밀착과 성적 욕구, 외디프스적 환상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Anthony, 1974; Gardner, 1977).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그러한 공격성이 부모의 양육의 질의 저하, 교사 등으로부터 받는 덜 지지적 태도 등에 기인한다고 주

장한다(Hetherington, et al, 1978; Santrock, 1975).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공격성이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외디프스기의 이혼의 경험은 청소년기의 여아에게도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 Kalter와 Rembar(1981)의 연구에 의하면,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혼을 경험한 여아들이 다른 어떤 연령에 이혼을 경험한 여아나 남아들 보다도 청소년기에 더 학업 문제와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외디프스기에 경험한 이혼에 대한 분노가 사춘기까지 내면화되었다가 폭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혼의 갈등의 경험을 즉시 외적 행동으로 푸는 남아들에 비해 여아들은 더 장기적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부작용도 외적 행동보다는 자긍심과 이성에 대한 행동 유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본다. Hetherington(1972)의 13세에서 17세되는 여아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혼한 가정의 여아들은 전반적으로 더 이성애 부적응적 행동을 보였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외디프스기에 이혼을 경험한 여아들은 그 이후에 경험한 여아들보다 더 부적절하게 이성애에 대한 수용과 유혹을 하였으며 더 일찍, 자주 데이트하고 성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디프스기의 부부제의 경험이 내면화되었다가 사춘기가 되어서야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아들의 이혼에 대한 경험은 즉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동안 잠복되었다가 사춘기에서야 표현되는 시한 폭탄효과(time-bomb effect)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Hetherington의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 재검증되지 못했는데, 예를들면, Hainline와 Feig (1978)의 연구에서는 17세에서 23세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기에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이 성역할에 대해 더 전통적 태도를 가졌으며, 대인관계나 결혼, 성교, 남성 면접자에 대해 더 의존적 태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이 두 연구들은 대상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Guttman(1993)은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를 이들 변인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Hetherington의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이 더 어리기 때문에 이혼의 적응 과정에 과도기적 현상으로 성적 조숙성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이었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경험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강화되어 사춘기에 폭발하는 시한 폭탄 같은 효과를 가진다기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화된다고 결론지었다. Guttman(1993)은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기에 경험한 부모의 이혼은 초기 사춘기에 공격성으로 또 이성애에 대한 태도의 조숙함으로 나타나는 잠재적 효과를 가지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극복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연구에 의하면 (Whitbeck, Simons, & Kao, 1994), 청소년기에 이혼한 부모가 데이트하는 행위와 청소년의 성적 행동이나 성에 대한 태도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혼 후 어머니가 데이트하는 대상의 수가 많고 그 회수가 빈번할 수록 남아들의 성적 행동이나 성적 태도가 부정적이며 여아들의 경우도 성적 태도가 더 성행동을 수용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성적으로 조숙하고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외디프스기부터 잠재된 공격성이나 충격이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혼한 가정의 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데이트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적 조숙함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유아기의 이혼의 경험이 아동의 학업에 미친다고 주장된다. 유아기의 부모의 이혼 경험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이러한 문제행동이 잠복기까지 계속되므로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인 근면성의 획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아동들은 학령기에 학업 부진을 경험하게 된다. Blanchard와 Biller(1971)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아동들이 5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을 때 더 학력의 성취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 이혼이 초등학교기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

잠복기에는 아동의 사회인지적 발달 수준이 유아기보다 훨씬 증가한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발달해 있지만 아직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 Stewart,

Copeland, Chester, Malley, Barenbaum (1997)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조망 능력, 대인 인식(person conception), 자의식(self-consciousness),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등의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과 이혼 후의 적응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의 분노를 부모에 대한 충성심이나 공포의 감정과 잘 통합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Guttman(1993)은 이러한 갈등이 이 시기 아동들의 사회인지적 발달이나 대인관계 기술의 한계 뿐만 아니라 심리성적 발달에 의해서도 설명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는 아직도 부모와의 동일시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떠난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상처와 분노의 감정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클 것이다.

종합하면, 정상 가정의 박탈, 부모에 대한 비난, 이혼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대한 자의식 등으로 인하여 이 시기의 아동은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아기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이시기의 아동들도 적응에서 성차를 보이는 데 Stewart 등(1997)에 의하면 남아가 더 행동적 부적응을 보이며 여아들은 신체적 질병에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들의 신체적 질병은 이혼의 충격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남아들의 부적응 행동은 심리성적인 시각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충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Anthony, 1974). 부부재는 이 시기 아동의 근면성 획득에 영향을 주고 열등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분노, 불안, 슬픔, 인지적 혼란을 일으키며 남아가 학업 성취 부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혼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의사소통과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 심하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단기적 영향

잠복기의 아동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면 초기의 아동들은 분노를 공격성으로 표출하는데, 대체로 전위된 공격으로 나타나 교사나 형제들에게 향한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아버지를 떠나게 한 책임을 돌리며 어머니에게 표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시기의 공격성은 전위된 공격성이다(Camara & Resnick, 1989; Santrock & Warshak, 1979).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 Kalter와 Rembar(1981)의 임상적 연구에서는 이시기에 이혼을 경험한 남아들의 경우 무생물에 대한 공격적 행위가 적고 또래에 대한 비공격적 과잉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시기의 이혼의 경험은 그들의 분노를 내면화하게 하며 어떤 형태의 공격성도 과도하게 억제하려는 불안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잠복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그 이후의 아동의 반응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 그들은 어떠한 방어 기제도 사용하지 않고 슬픔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 이러한 슬픔은 현재 같이 있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되는데 임상적 장면에서는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빼앗기는 환상으로 표현되며 과식이나 장난감이나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Wallerstein & Kelly, 1975; 1980).

이 시기에는 더 이상 과잉의존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잠복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인지발달의 결과 가족간의 갈등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한쪽 부모와의 동맹관계 형성이나 다른 부모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Hess 와 Camara (1979)와 Cooper, Holman, Braithwaite (1983)의 연구에 의하면 소외된 아동이 자아존중감의 상실, 우울, 장애 행동과 학업성취부진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갈등의 경험은 이혼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한 부모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 이들은 양쪽 부모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므로 아동들이 더욱 슬퍼지며 더이상 어떤 부모도 지지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어린 아동들 같이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잠복기 초기와 달리 후기 잠복기 아동은 그들의 무력감에 대한 방어로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공격적일 수 있으며 그들이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은 이혼 자체보다 가족간의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가 혼자 양육하게 됨에 따라 훈육 담당자가 되고 그녀의 힘의 과시에 대한 반항으로 분노가 표출된다.

후기 잠복기의 아동들은 이혼에 대하여 부인(denial)과 같은 수동적 방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적극적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는 적극적 시도와 감추려는 의도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 거절 당한 느낌, 무력감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분노만은 분명히 표출되는 정서이

고 이 시기 아동이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하여 나타내는 감정이다.

이 시기에는 이혼후 부모의 갈등 속에 끼이게 될 위험이 가장 커지는데 양 부모는 모두 자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시기 정도의 아동은 자신과 한편이 되어, 자신들을 지지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부모의 동맹이나 충성 요구에 취약하다. 청소년기에는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외부에서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잠복기의 아동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가족 내에서 밖에 지지를 구할 수가 없다. Stewart 등 (1997)의 연구에서는 6-12세된 아동들은 높은 부-자녀(비친권)간의 갈등은 모-자녀(친권) 간의 더 원만한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혼의 책임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리는 것과 이혼후 예상되는 문제의 정도와 정적 상관이라는 연구결과(Young, 1983)는 이 시기 아동이 양육 부모와 한 편이 되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같이 사는 부모와 동일시 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의 안정성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가 될 수있다. 양육 부모와의 동맹관계는 한편으로 안정감을 되찾게하고 적대적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무력감이나 불안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므로 하나의 적응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적응 전략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부모가 이혼 초기에 자신들의 갈등 문

제로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고립되어 있으면 초기의 잠복기의 아동은 방어적 중립을 보이고 더 큰 아동들은 속을 들어내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격리는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의 적응을 묻는 질문지에 대한 응답에서 아주 객관적 사실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자녀의 보고 간에는 유사성이 없었다(Young, 1983). 다른 연구에서도(Hingst, 1981)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적응을 아동 자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Stewart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잠복기 내에서도 초기의 아동은 이혼 후 1년이 경과한 뒤 심리적 적응과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후기 잠복기 아동들은 심리적 적응은 문제가 없었으나 신체적 질병은 이혼 직후 보다 더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잦은 신체적 질병이 이혼에 대한 분노의 내면화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잠복기의 부모의 이혼 경험은 아동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Hetherington, Camara, Featherman (1981)이 58개의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편부모의 자녀들은 학업 성취가 저조하며 교사로부터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분노가 학교 장면에서도 표출되며 이러한 부정적 문제 행동들이 그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 시키고 선생님들로 부터도 부정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정적 평가는 그

들의 인지적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 다른 심리, 행동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뒷바침 하는 연구가 있는데 Blanchard와 Biller(1971)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이혼을 경험한 아동과 이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많이 부재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보다 교사의 평가가 낮았고 학업 성취 검사의 결과도 낮았다. 그러나 교사의 평가와 IQ와의 상관은 아버지가 더 많이 집에 계시는 가정의 아동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는 부부재 아동의 경우 지능과 학업 성취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성취하는 남성 모델의 결여로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준다.

잠복기의 부모의 이혼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이 시기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주소희(1991)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이혼 경과기간이 1년에서 5년이상에 걸쳐 다양한 이혼 가정 집단에 대한 이혼 경과 기간과 정신건강과의 상관연구를 하였는데, 이혼 경과기간이 장기일수록 정신증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혼 경과기간이 단기일 수록 편집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잠복기의 이혼이 장기적으로는 정신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편집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이혼의 초기에는 투사적 사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 상실과 두려움 등의 편집증적 사고가 나타나다가 장기적으로 더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소외에서부터 정신병에 이르는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 영향

잠복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이후의 장기적 적응은 어떠한가? 유아기의 남성 동일시 모델의 결여로 인한 성역할의 결함이 이후 청소년기의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에서는 잠복기의 부부재의 장기적 효과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 잠복기의 부부재의 장기적 영향도 심각하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이혼 초기에 강한 분노를 보였던 아동들의 장기적 후유증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중간 정도의 분노를 보였던 아동들도 청소년기가 되면서 더욱 분노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분노가 청소년기의 반항 심리와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혼 초기에 어느 한편의 부모와 동맹관계에 있던 아동들도 청소년기가 되면서는 더이상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회적, 자기 파괴적 행동을 나타낸다. 그들의 행동은 폭발적 성질부리기, 부모에 대한 거부, 비행, 학업 실패, 무단 결석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은 이혼 초기에 양쪽 부모를 모두 비난하고 부모로부터 멀어진 소외된 청소년들이다.

이혼의 장기적 효과에서도 성차이가 나타나는데 이혼 후 5년까지도 남자들은 계속 문제행동을 보이며 여자들은 성행위와 성적 방종의 증가를 보인다. 여자들이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비해 성적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남성 성인과의 상호작용의 결여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성들이 나타내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Wallerstein & Kelly, 1980).

학업과 관련된 장기적 효과는 여아에게

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남아들에게서는 나타난다. 잠복기에 이혼을 경험한 남아들은 청소년기에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무단 결석, 등교 거부 등의 문제들을 일으킨다(Kalter & Rembar, 1981).

부모 이혼이 청소년기 자녀에 미치는 영향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은 어느 정도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독립하여야 한다. 두번째 경험하는 분리-독립의 갈등(영아기에 한번 경험함)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다(Johnstone & Roseby, 1997).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러한 독립을 획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을 성취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시기에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외디프스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남자는 성적 욕구와 불안을 느끼며 어머니와의 이성적 사랑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도피하거나 어머니에게 지원이나 동맹을 철회할 수도 있다. 여아의 경우 자신의 성적 불안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관계에 대한 거부를 느끼거나 아버지의 애정이나 배려를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에 갈등을 느낀다(Johnstone

& Roseby, 1997).

단기적 영향

청소년기에 이혼으로 인한 남성 모델의 부재가 남아들의 여성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전통적 남성화된 행동이 청소년기 남아에게서 나타난다. 그들은 더 남성적이고 불복종적이고 공격적이며 위험부담 행동을 한다. Guttman(1993)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이혼의 경험은 두가지 부류의 행동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퇴행적 행동으로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결석하거나 학업성취가 떨어진다. 다른 하나의 부류는 의존적 욕구를 또래에게 전이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자한다. 남아들은 반사회적이거나 비행을 저지르며 여아의 경우 증가된 또래 의존성을 조기 이성 관계로 표출한다. 이혼은 흔히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준비된 상태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양육 부모가 직업을 가진 경우, 더 많은 집안일과 동생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떠맡게 된다. 또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청소년은 부모에게 상담자나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더 비행적이 되는 것은 이혼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부모간의 갈등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의 이혼에 대한 부적응은 부모의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로 최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감의 획득에 실패한 집단과 양부모로 부터 모두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집단은 가족으로부터의 조기 분리의 경험과

퇴행에 취약하다. 청소년들이 가족의 문제로 부터 전략적으로 철수할 수 있을 때 더 적응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어린 아동보다 더 부모의 갈등에서 독립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그렇게 명확히 지지되고 있지 못하다. Buchanan, McCoby, Dornbusch(199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더 부모의 갈등사이에 끼인 기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연령이 증가할 수록 더 부모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는 자녀들의 심리적 부담을 나타내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양부모 사이에 끼인 것 같은 느낌은 청소년들이 사회인지적 발달로 인하여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보다 어느 한 쪽 부모의 편을 들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이에 끼인 것같은 느낌을 더 많이 느낄 수록 더 부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문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적응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다.

단기적 영향

청소년기의 이혼의 경험이 장기적 효과로 중요한 것은 이혼이 세대간에 전이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성인들이 그들의 결혼을 더 쉽게 이혼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을 경험한 시기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일 경우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서 쉽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낼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의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더 부정적 결혼

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켜 준다는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18세에서 34세된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한 가정과 사별한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 태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의 다른 변인(부모 교육 수준, 부모의 영어 사용 여부, 종교, 형제 수 등)을 통제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mato, 1988).

Pope와 Mueller(1976)와 Glenn과 Kramer(1987)와 Keith와 Finlay(1988)의 이혼 가정과 정상 가정의 자녀들의 이혼 발생에 대한 연구들의 종합 검토 연구에서 이혼 가정의 자녀가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백인 여성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모가 이혼하면 딸들도 더 이혼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혼한 가정의 부모들이 적절한 결혼 생활에 대한 역할 모델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들은 이혼이 세대간에 전이되는 이유가 역할 모델의 기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몇몇의 연구에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더 자주 이혼을 하게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점은 이혼한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자녀들의 교육 수준 등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이 성장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육을 덜 받는 경향이 있고, 결혼 생활이 사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더 성

적으로 조속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일찍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시에 이미 임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당시 부터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다. Mueller와 Pope(1977)가 자신들의 1976년 연구 대상들을 재분석한 결과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이혼 가정의 자녀의 양육 환경

양육가정의 가족형태

이상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의 차이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았는데 이혼 당시의 연령 못지 않게 중요한 변인은 이혼 후에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의 양육 방법에 의해 자랐는가이다. 양육 환경 중에서도 특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나의 문제이다.

양육권의 문제는 이혼한 부부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지만 실제로 어느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혹은 공동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또 이혼 이후의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미국의 경우 대개는 아버지)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까지도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이다. 그러나 점차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 변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었다. 자녀 양육권은 미국의 경우 90% 정도가 어머니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아버지에게 주어진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진다.

경우가 33.3%, 아버지에게 주어진 경우는 76.56%로 아직은 부의 친권을 더 인정하는 문화이다. 그리고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을 공동 책임으로 둔다든지 별거하는 부모에게 면접권이 주어진 경우는 아주 미미하면서도 그 질이 아주 저조한 형편이다. 이혼 후에 약 반수의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에 접촉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반수는 전혀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주 접촉하는 비율은 모자간 10.3%, 부자간 9.1%이고 나머지는 때때로 접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만나는 장소는 집 밖, 학교앞, 길거리, 제과점, 고궁, 사무실 등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양육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최재석, 1981). 정현숙(1991)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자 158명 중 31.6%가 어머니와 동거하고 55%가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후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만나는 정도는 48.3%가 전혀 만나지 않았으며 24.7%가 1년에 1-2번, 31.3%가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편모 가정, 편부 가정, 양부모에게 양육 책임이 부여된 가정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편모 가정의 특징중 가장 급격한 변화는 경제적 조건의 악화이다. 미국의 경우 편모 가정은 1/3정도가 빈곤층에 속하며 편부 가정은 8%이하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어려움은 편모의 경우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혼후 여성과 남성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그 정도에서 여성은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경제 수준에서의 어려움이었는데 반해, 남성들의 경우는 이혼 후 감소된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변화순, 1996).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취업한 어머니는 대체로 자녀 양육에 보내는 시간이나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변화이다. 남편과 관련된 친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는데 새로운 관계는 대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하향 조절 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편모 가정의 사회적 지원 체제는 자연스럽게 위축되거나 하향화 될 수 밖에 없다. 편모 가정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나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부장적 권위가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는 비교적 평등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가 개방적이되고 더 친근해 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반면에 자녀는 어머니의 정신적 지지자 혹은 상담자가 되고 남편의 대리 역할을 맡기도 한다. 청소년 자녀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 자녀 간에 역할 전도(role reversal)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염려하며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잉 의존적 상태를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전도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밀접한 협조자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을 때 덜 나타났다(Johnston, 1990).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남성 역할 모

델의 결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편모 가정의 경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학령전 자녀를 둔 가정은 실제로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학령기가 되면 신체적 양육 시간의 부족 보다는 자녀들과 정신적 유대 관계를 위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자녀들의 학업이나 과외 활동들을 충분히 뒷바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충이 크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무엇보다도 자녀의 훈육이나 자녀들의 기량을 잡는데 어려움이 크다.

편부 가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더구나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에 비하여 그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표집이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대개 특수한 경우로서 이혼 전의 자녀 관계가 아버지와 더 가까웠거나, 더 양육에 책임을 졌거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현저할 때이기 때문에 이들 아버지들은 일반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들은 자녀 양육 기술에서 더 자신감을 가지며 스스로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 그들은 이혼하지 않은 전통적 가정에서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란 경향이 있다 (Guttmann, 1993). 우리나라의 편부 가정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 양육과 직장의 일을 양립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고충이라고 볼 수 있다(변화순,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들도 실제로 편부 가정의 문제들은 거의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Buchanan 등(1996)의 연구는 이러한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들의 적응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4년 반 동안 조사한 종단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 두가지 유형의 가족 형태 외에 양부모에 의한 공동 양육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공동 양육의 이점과 그 발생 빈도의 증가에 따른 관심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새로운 명칭 즉 이중핵 가족(binuclear family) 혹은 이중 편부모 가족(double single-parent family)이 자주 사용 되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다. 공동 양육에 대해서는 그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는 않다. 이중 양육의 이점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 부모도 상실하지 않은 채 양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양쪽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안정성이 사라지고, 두 갈등 부모의 사이에 끼어서 충성심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고, 부모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추적할 수 없어서 훈육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Buchan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다른 편부모 가정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세가지 유형의 가족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동 책임의 가정이 약간 더 자녀의 적응에 도움을 주며 편부 가정이 약간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외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가정들은 동일한 가족 형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4년반을 경과하면서 더 적절한 가족 형태로 바뀌어 갔는데 이러한 적응적 방향으로의 가족 형태의 이동이 세집단 간의 차이를 좁힌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그리고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안된다.

가족 유형내에서의 양육 과정 변인의 차이

어떤 가족 형태이든 그 가족 내에서 가족관계의 과정 변인이 중요할 것으로 추론된다. Buchan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과정 변인으로 부모의 갈등의 정도, 부모 자녀관계의 밀접성, 부모의 관리와 감시의 정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왕래 등의 변인들이 조사되었다. 가족 형태에 따라 부모의 갈등과 자녀가 부모의 사이에 끼인 것 같은 느낌간에는 상관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부모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 공동 책임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 사이에 끼인 것 같은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집단의 심리적 적응이 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자녀가 적응적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는 다른 가족 형태보다 부-자녀의 밀접성이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정현숙(1991)의 연구에서도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적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대화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Buchanan 등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밀접성과 유사한 변인으로 두 연구의 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관리와 감시도 모든 가족 형태에서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나 여자 아이들에게는 효과

에 한계가 있었다.

어느 한쪽의 부모와만 사는 경우도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 적응에 더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아버지가 더 자주 방문하는 편모 가정은 아버지의 양육의 질이 더 높다(Arditti, & Keith, 1993).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양육의 질은 자녀의 외면화된 부적응(싸움, 불복종, 낮은 학업성취,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Simon, Whitbeck, Beaman, & Conger, 1994). 우리나라의 연구(정현숙, 1991)에서도 이혼 후 비친권 부모와 더 많이 접촉할 수록 더 잘 적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것은 동성부모가 양육할 때에 이성부모가 양육하는 것보다 자녀의 적응에 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Buchanan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분명하게 뒷받침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그러한 주장이 지지 되었다. 어머니와 같이 사는 딸들의 적응이 높았고 아버지와 함께 자라는 딸들의 경우 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딸들이 요구하는 보살핌과 아버지가 해 줄 수 있는 보살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일 수 있다. 아버지들은 딸들의 세심하고 섬세한 요구에 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딸들의 신체적 성숙으로 신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의 경우 적응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들에 비하여 나쁘지 않으며 아버지와와의 접촉이 더 적응을 높여 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들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연구에서도 동성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데 정현숙의 연구에서는 동성부모의 양육이 더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오온순(1997)의 연구에서는 동성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더 적응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차이가 어떤 변인들의 매개에 의해 일어났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동성부모의 양육 환경과 이성 부모의 양육환경의 구체적 차이를 좀 더 분석해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논의 및 제언

이상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하여 발달적, 양육환경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발달에 대하여는 사회인지적, 심리성적, 심리사회적 이론들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뒷바침할 실증적 연구들은 많지 않아서 해석이 상당부분 추론에 그치는 한계가 있지만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 가정의 자녀의 적응에는 개인적 변인으로 중요한 것이 연령과 성인에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어릴 수록 더 적응이 어렵고 남아가 여아보다 더 부적응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아의 이혼으로 인한 부적응은 남아들과는 달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화된 정서적 우울이나 무기력, 낮은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나므로 여아가 이혼에 대하여 더 적응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령과

성 차이를 이러한 전반적 차이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미흡하다.

이혼가정의 자녀는 이혼을 경험하고 그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 발달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영유아기에 이혼을 경험하면 그 이혼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환상에 의해 자신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부모의 상실을 버려진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 결과 퇴행과 과잉 의존적 행위, 공격성 등이 나타난다. 영유아기의 이혼은 장기적 영향은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남아는 공격성과 과잉 의존성을 보이며 여아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던 성적 조숙이 청소년기에 표출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시기의 이혼의 경험은 슬픔과 우울등의 정서로 나타날 수있고 전위적 공격이나 무력감에 대한 분노 등을 표출할 수 있다. 더 이상 부모의 이혼 이유에 대해 자책하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의 부모와 충성심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 한쪽 부모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강하게 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모와의 동맹은 단기적으로는 적응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이혼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청소년기에 더 이상 부모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반사회적 행동, 비행, 학업 실패,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여아들에게는 이혼의 경험으로 인하여 더 성적으로 조숙하거나 성행동에 관심을 갖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이혼의 경험은 남아들에게 더 불복종적, 공격적, 위험부담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청소년기에 더 비행이 나타나는 것은 이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는 부모 갈등 사이에 끼인 것 같은 기분이 더 들게 되는 데, 부모의 갈등으로 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시기의 적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혼을 경험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적절한 결혼 생활의 역할 모델의 결여로 그들 스스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의 세대간 전이가 역할 모델의 부재 때문인지 청소년기에 이혼한 부모의 빈번한 데이트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발달적 차이에 기인한 적응 상의 차이외에도 양육 가족 형태, 이와 관련된 양육 환경의 과정 변인들의 효과가 적응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에는 편부모에 의한 가족 형태보다 공동 양육 형태의 이중핵가족이 그 효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공동 책임의 양육 형태가 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전적으로 양육 책임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동성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맡는 것이 더 자녀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특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 시기의 성적 요구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의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성 부모의 양육 효과는 아직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혼 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 상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영유아기에 이혼은 단기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어린 아동들은 신뢰감과 자율성 획득에 저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후 자녀 양육의 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 쪽 부모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뢰롭고 안정적이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하는 양육 방법이 중요하다. 유아기 정도가 되면 이혼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부모의 이혼과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이어서 이혼 후에도 부모는 계속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외디프스적 갈등에 대한 과잉 보상과 같은 공격적 부적응이나 과잉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양육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학령기에 이르러서는 아동들이 근면성의 획득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편모 가정에서도 성취 지향적, 목표지향적 태도와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획득하도록 모델링하여 주어야 하며 부모의 갈등 속에 자녀를 끼이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 역할의 지속이 어렵다면 대리 역할 모델이 될 대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모 모두 양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혼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점을 질적 보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나 가족간의 관계로 부터 독립적이라도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청소년 자녀에게 의존적 이어서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고 배려하려는 역할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도 이혼한 부부는 계속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배우자의 역할까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편부모의 가족 형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부모 공동양육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가능하면 양부모가 자녀 교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독점하고 거의 면접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길거리나 집밖에서 자녀를 몰래 잠시 만나는 그러한 양육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나 가정에서도 이러한 관습이나 제도를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배희 (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계행 (1991). 이혼에 관한 문헌적 고찰.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마주해 (1996). 이별 그리고 홀로서

기. 국민일 보사.

변화순 (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96연구보고서 200-18.

오은순 (1996).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현숙. (1992). 가족해체와 자녀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연구회

주소희 (1991). 이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혜. (1992). 가족해체와 부부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연구회

Amato, P.R. (1988). Parental divorce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2. 453-461.

Amato, P.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Anthony, E. J. (1974). Children at risk from divorce: A review in E. Anthony & C.Koupenick (Eds), *The child in his family: Children at psychiatric risk* (vol. 3, pp.142-173) New York: Wiley.

Arditti, J. A., & Keith, T. Z. (1993). Visitation frequency, child support payment, and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post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55, 3, 699-712.
- Billar, H. B. (1970). Father absence and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the male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2(2), 181-201.
- Blanchard, R. W., & Billar, H. B. (1971). Father avail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third-grade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4, 301-305.
- Buchanan, C. M., Maccoby, E. E., & Dornbusch, S. M.(1996). *Adolescents afterdivorce*. Havard University Press.
- Camara, K. A., & Resnick, G. (1989). Stylesof conflict resolution and cooperation between divorced parents: Effects on childbehavior and adjustment. *American Journalof Orthopsychiatry*, 59(4), 560-575.
- Cooper, J. E., Holman, J., & Braithwaite, V. A. (1983). Self-esteem and family cohesion: The child's perspective an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53-159.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Gardner, R. A. (1977). Children of divorce: Some legal and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6(2), 3-6.
-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ge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ge and the Family*. 49(4). 811-825.
- Grief, G. L. (1997). *Out of Touch*. Oxford University Press.
- Guttman, J. (1993). Divorce in Psychosocial Perspective: *Theory and Research*. New Jersey: Hillsdale.
- Hainline, L., & Feig, E. (1978). The correlatesof childhood father absence on college agewomen. *Child Development*, 49(1), 37-42.
- Hess, R. D., & Camera, K. A. (1979).Post-divorce family relationships as mediating factor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children. *Journal of SocialIssues*, 35, 79-96.
- Hetherington, E. M. (1972). Effects of fatherabsence on personality development inadolescent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7(3), 313-326.
- Hetherington, E. M. Camera, K. A, & Featherman, D. L.(1981). Cognitiveperformance, school behavior and achivement of children of one-parent families. Medford, MA: *Child and Family Study*, Tufts university.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8) The aftermath of divorce. in J. H. Stevens & M. Matthews(Eds), *Mother- child*,

- father-child relations*(pp.149-176). Washington,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9). Family interaction and the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following divorce. in V. Vaught & T. B. Brazelton (Eds.), *The family* (pp.49-93). New York: Science Medicine.
- Hingst, A.G. (1981). Children and divorce: The child's view.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0, 161-164.
- Hodges, W. F., & Bloom, B. L. (1984). Parent's report of children's adjustment to marital separat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Divorce*, 8(1), 33-50.
- Johnstone, J. R.(1990). Role diffusion and role reversal: Structural variations in divorced families and children's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39, 4, 405-103.
- Johnstone, J. R. & Roseby, V. (1997). *In the Name of the Child-A Development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Helping Children of Conflicted and Violent Divorce*. The Free Press.
- Kalter, N., & Rembar, J. (1981). The significance of a child's age at the time of parental divor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85-100.
- Keith, V.M., & Finlay, B.(1988).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timing, and like lihood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3, 797-809.
- Longfellow, C. (1979). *Divorce and separation*(pp.287-306). New York: Basic Books.
- McDermott, J. F.(1970). Divorce and its psychiatric sequelae in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3, 421-427.
- Mueller, C. W., & Pope, H.(1977). Marital instability: A study of its transmission between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83-93.
- Pope, H., & Mueller, C.W.(197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Comparisons by race and sex.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49-66.
- Roseby, V.(1985). Divorce: Short- and long-term consequen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Santrock, J. W.(1970). Paternal absence, self typing and iden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264-272.
- Santrock, J. W.(1975). Father absence, perceived matern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 in boys. *Child Developments*, 46, 753-757.
- Santrock, J. W., & Warshak, R.(1979). Father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 Selman, R. L.(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 Simons, R. L., Whitbeck, L. B., Beaman, J & Conger, R.D. (1994) The impact of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an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2, 356-374.
- Stewart, A.J., Copeland, A. P., Chester, N.L.,Malley, J. E. & Barenbaum, N. B. (1997). *Separating together*. New York:Guilford.
- Wallerstein, J. S.(1984). Children of divorce: The psychological tasks of the child. *Annual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Child Development*, 263-280.
- Wallerstein, J. S., & Kelly, J. B.(1974).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The adolescentexperience. In E. J. Anthony & C. Koupernik(Eds.), *The child in his family* (vol.3. pp. 211-236). New York: Wiley.
- Wallerstein, J. S., & Kelly, J. B.(1975).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Experiences of the preschool chil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4,600-616.
- Wallerstein, J.S., & Kelly, J.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Basic Books.
- Whitbeck, L. B., Simons, R. L. & Kao, M. (1994). The effects of divorced mothers' dating behaviors and sexual attitudes on the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ir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 615-621.
- Young, D. M. (1983). Two studies of childrenof divorce.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9. 61-69.
- Young, E. R., & Parish, T. S. (1977). Impactof father absence during childhood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ollegefemales. *Sex Roles*, 3, 217-227.

Psycho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Jong soo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reviewed the research of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It focused on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and after divorce. During preoedipal and oedipal period,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divorce to themselves and perceive the separation and leaving of one parent as abandoned. During latency period, they felt caught in a trap and loyalty conflicts between parents most strongly. During adolescence, they experience sexual maladjustment in dating or in marriage.

It has also reviewed the effects of family type and the impacts of process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the degree of cooperation in parenting, the relationship and open conversation between the parent and the child, and the degree of conflicts between parents. The review suggests that clos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parents and children will help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토론 :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사회심리학적·발달적 이해

김 광 웅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전통적으로 우리문화에서 "이혼"이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천생연분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륜이었다. 또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로 여겨,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에서 남성의 이혼행포를 최대한 방지하는 문화적 장치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출가외인이라하여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엄한 규율로서 이혼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문화였는데 근대화되고 서양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이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게 되었고, 6~7쌍 중 한쌍은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특히 요즘에는 40~50대 이후 나잇살이나 먹고 채면차릴 수밖에 없는 연령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더욱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리나라의 물질문명과 신세대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 이혼율이 5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이혼율은 별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렇게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혼한 부부의 자녀문제일 것이다. 시·군·구에 한명씩 있는 아동복지지도원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근래,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맡을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과 상담이 급작스럽게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혼이 가져다 주는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오늘날 서양에도 없는 일이다. 전 같으면 서로 아이를 맡으려는 것이 우리 이혼 부모들의 인지 상정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고아원에 '부모없는 고아'는 별로 없고 '부모있는 고아'가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우리의 비정하고 슬픈 세태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차제에 본 학회에서 이혼과 관련하여 적응문제를 학술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표하신 이종숙교수께서 이혼가정자녀가 받은 영향을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소상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논의한 점, 주제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문제를 편부가족, 편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와 관련하여 논의한 점은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혼가정 자녀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쉬운 점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국 등 서양의 자료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해석과 논의도 어떤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기대하기는 세세자료가 서양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논의 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적 상황과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결혼,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이혼, 재혼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것을 그대로 우리의 상황인 것처럼 보아야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발표내용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문제제기하는 정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서양의 이론이나 연구자료를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이혼과 관련된 자녀들의 심리적 문제에는 이러한 조심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Longfellow(1979)의 귀인행위 같은 것은 우리 문화에서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혼 후 가족형태도 편모가족, 편부가족,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부성결핍이나 남성모델 결핍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요즘은 편부가정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결핍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혼가족의 자녀문제는 재혼가족의 자녀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재혼가족에 대한 자녀들의 발달적·심리적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이혼후 편부, 편모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가 오히려 재혼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가정의 자녀문제보다 재혼가정의 자녀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혼가족이나 재혼가족의 자녀적응문제만을 전담하는 상담기관이나 복지기관이 마련되고, 관련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증가하고 있는 이혼이나 재혼과 관련된 사회문제,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연구지원체제가 국가적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 이혼상태는 아니지만, 부모중 한쪽이 영구가 출하여 이혼과 마찬가지로 편부모가족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토론 : 이혼 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사회심리적, 발달적 이해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혼율의 증가로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소위 연속적 결혼(serial marriage)이 유행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평균 결혼 길이가 단지 7년정도여서 결혼과 동거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뿐아니라 이제 이혼은 정상적 결혼생활의 일부로 인식될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Raschke, 1987), 그것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에 대한 논의자체가 이미 불필요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혼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주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구의 수도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 있다.

발표자도 지적한 것처럼 이혼의 가장 부정적 영향은 이혼한 부모를 갖는 자녀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또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혼이 세대간에 걸쳐 대물림되는 것과 같은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발표자는 이혼한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거나 결혼생활에 대한 적절한 역할모델이 결여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이유외에도 또 다

른 중요한 이유로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혼을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혼의 영향이 그렇게 간단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심리성적, 심리사회적 그리고 사회인지적 발달이론에 기초하여 이혼의 영향을 고찰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혼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일방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므로 이혼이 초래하는 역동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의 지적대로 선행연구들이 이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동들은 부모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닐 뿐아니라 성장할수록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나 동년배 혹은 지역사회와의 여러 대리인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에 의한 영향은 중다의 변인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Lerner(1995)에 의해 제안된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는 성장하는 개인과 다양한 체계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 모두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인지능력, 성격, 기질, 행동, 가치관, 태도, 기대, 건강 및 그들의 발달 수준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즉 조부모를 포함하는 친인척과 형제자매로 구성되는 결혼연결망은 물론 학교와 급우의 학교 연결망, 부모의 친구나 아동의 친구로 구성되는 사회적 연결망 및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 연결망 등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부모와 자녀는 상호작용을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나 문화 혹은 자연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역동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장과 함께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나타내는 문제 행동은 부모의 이혼 그 자체에 기인되기 보다는 가족내에 누적된 문제의 결과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혼가정에서는 이혼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족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긴장이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증거로서 부모의 이혼 후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있는 결혼생활보다는

이혼이 자녀의 양육에 더 바람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아동들이 문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인사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Goertzel & Goertzel, 1962), 그들 중 단지 58명만이 비교적 문제가 적은 가정 출신들이었고 그 외의 대부분은 병리적 가족환경에서 성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시련이나 갈등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심각한 좌절 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문제있는 부모를 오히려 부정적 역할 모델로 지각함으로써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으므로 이혼의 영향에 대한 성급한 결론은 위험할 수 있다.

이혼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혼의 부정적 영향과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반응은 물론 우리의 가족역동이 서구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내에서 이혼이 주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Lerner의 모델을 바탕으로 관련변인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이혼에 기인된 부정적 영향의 규명은 물론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효과적 대처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가정은 일종의 위기가정에 해당함으로 중다의 변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혼이라는 사건에 의해 야기된 아동의 적응문제를 논의한다

는 것은 자칫 무의미할 수 있다.

문제가정이나 위기가정의 아동들이 바
람직하게 자랄 수 없는 이유는 물론 그

반대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
해서도 중다변인모델을 사용한 연구의 필
요성이 대두된다.